

발간번호 2022-12

문화도시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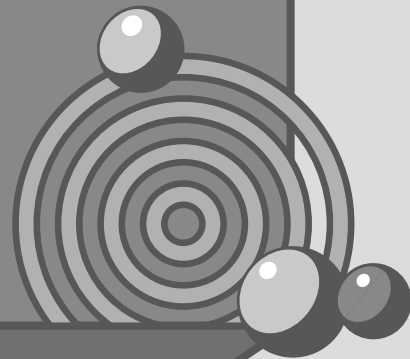
2022 문화도시부평 시민포럼 사후자료집

2022. 11. 5. SAT

장소 | 공연창작소 지금

대상 | 문화두레시민회원 누구나

2022 문화도시부평 시민포럼



시민들이 바라는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기회가 있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으며
아이와 부모, 어르신과 장애인 모두 어렵지 않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지역을 누구든지 수월하게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에서 찾아낸 문화도시부평을 향한 시민들의 제안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국가애도기간이 겹쳐 조용하고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신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흩어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글과 영상으로 현장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부디 개인의 의견이 지역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주제 | 시민활동, 부평환경, 무장애도시 등 시민들의 이야기 나눔

일자 | 2022. 11. 5.(토) 13:00-16:00

장소 | 공연창작소 지금(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94 지하)

대상 | 문화두레시민회원 누구나

내용 | 문화두레시민운영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문화도시부평에 대한 의견 제시

문의 |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시민팀 032.500.2152



행사 식순

구분	일정		내용	진행/발표
개회	13:00-13:05	5'	개회 및 인사말	황유경 문화도시센터장
진행 김유정 문화도시센터 시민팀장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부평				
발제	13:05-13:20	15'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민활동	박일용
	13:20-13:35	15'	시민이 예술하고, 예술가가 시민활동을 하는 지역	권순금
깨끗한 문화도시부평				
발제	13:35-13:45	10'	〈굴포천천히〉의 시작과 진행 과정	문경선 문화도시센터 굴포천천히 담당
	13:45-14:00	15'	머무르고 싶은 부평의 자연과 도시환경	최종희
제언	14:00-14:10	10'	함께 나누는 당신의 이야기 - 환경보호와 굴포천천히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해서 좋은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는 문화도시부평				
발제	14:10-14:25	15'	누구나 편한 소풍길 제안	서선미
	14:25-14:40	15'	무장애도시의 개념과 부평	김광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14:40-14:55	15'	평등하게 놀 수 있는 무장애놀이터 제안	김선정
	14:55-15:10	15'	발달장애아동과 완성한 무대와 기획	윤재훈 월유엔터테인먼트 실장
제언	15:10-15:20	10'	함께 나누는 나의 이야기 -소수자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제안	함께 해서 좋은 누구나
더 나아지는 문화도시부평				
발제	15:20-15:35	15'	스탬프투어 : 우리가 사랑하는 부평의 장소와 공간	주철민 아도커뮤니티 대표
	15:35-15:50	15'	아동돌봄에 관한 의견	신경열
제언	15:50-16:00	10'	함께 나누는 당신의 이야기 - 문화도시부평을 위한 다양한 관점	함께 해서 좋은 누구나

목차

개회	개회 및 인사말	황유경 문화도시센터장	7
발제 1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민활동	박일용	11
발제 2	시민이 예술하고, 예술가가 시민활동을 하는 지역	권순금	13
발제 3	〈굴포천천히〉의시작과 진행 과정	문경선 문화도시센터 굴포천천히 담당	25
발제 4	머무르고 싶은 부평의 자연과 도시환경	최종희	31
제언 1	함께 나누는 당신의 이야기 - 환경보호와 굴포천천히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해서 좋은 누구나	51
발제 5	누구나 편한 소풍길 제안	서선미	57
발제 6	무장애도시의 개념과 부평	김광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61
발제 7	평등하게 놀 수 있는 무장애놀이터 제안	김선정	79
발제 8	발달장애아동과 완성한 무대와 기획	윤재훈 월유엔터테인먼트 실장	81
제언 2	함께 나누는 나의 이야기 - 소수자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제안	함께 해서 좋은 누구나	89
발제 9	스탬프투어 : 우리가 사랑하는 부평의 장소와 공간	주철민 아도커뮤니티 대표	95
발제 10	지역노인복지관을 활용한 아동돌봄에 관한 의견	신경열	103
제언 3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 문화도시부평을 위한 다양한 관점	함께 해서 좋은 누구나	111

개회

개회 및 인사말

✦ 황유경 문화도시센터장

김유정

안녕하세요. 부평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민들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민 문화 포럼 진행을 맡은 문화도시센터 시민팀장 김유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포럼과 부평의 지역 살펴보는 도시라슬여행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난 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투어는 다음 주로 연기가 되었으며 이번 참사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된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안식을 빌고 불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게 된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행사 순서는 황유경 문화도시센터장님의 인사 말씀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부평, 깨끗한 문화도시 부평, 공평하게 누리는 문화도시 부평, 더 나아지는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4가지 주제로 두 분에서 네 분 정도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주제부터 각각의 발표가 끝나면 약 10분간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진행될 수 있어서 제한된 시간이 한 15분, 10분 정도씩 주제 발표를 하실 텐데요. 주제 발표를 할 때 시간을 체크해서 유동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유정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유경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황유경입니다.

지금 김유정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먹먹하지만 또 저희는 일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마음이 더 먹먹해지는 그런 날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순간순간 눈물이 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어쨌건 우리가 또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든 게 합쳐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을 같이 함께하시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시

민 포럼이라는 조금 딱딱한 제목을 달고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김유정 팀장님 말씀처럼 같이 수다 떠는 편한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논의를 또 출발점으로 내년에 우리의 고민이 부평 이곳저곳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제 1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민활동

✦ 박일용

박일용

안녕하세요. 40대 같은 50대 박일용입니다. 저는 토론보다도 시민 활동을 왜 꼭 해야 하나, 어떤 목적이나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잠깐만 먼저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은하철도999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먼저 부평의 시민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부평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해야 합니다.

부평의 역사를 설명할 때 저는 음악으로 설명하는데요. 부평의 역사는 바로 은하철도 999입니다. 일 구구구가 뭐냐면요. 경인철도가 1899년도에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평도부가 부평향교의 계양구에 있었습니다. 이 은하철도 구구구처럼 우리 경인 철도가 부설한 것이 1899년도입니다. 저는 어느 역사 해설자보다 1899년도가 부평을 탄생시킨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870년도에 강화도 불평등 조약으로 제일 빨리 인천에서 서울까지 나를 수 있는 길이 부평향교가 아니라 부평역이다 보니 여기에 인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노동자였습니다. 여기에 사는 이 넓은 평화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땀그랑이 철도 하나.

2014년도에 제가 부평에 하숙생으로 있었습니다. 인천과 부평 활동을 하다 보니 나도 우리 부평을 더 사랑해보자 해서 연탄 봉사를 했고 그것을 통해 차츰차츰 영위하게 됐습니다.

부평이 법정 문화도시가 됐지만 저는 이 부평을 더 아름답게 하기위해 문화나 시민 활동을 다른 분들한테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민 활동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활동을 하여 이 아름다운 부평을 더 영위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

박일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구한 역사가 있었던 부평입니다. 삼산동에 주부토로가 있듯이 고구려 시대에서부터 유래가 됐던 것이 있고, 이런 여러 유구한 역사 속에 1899년 경의선 철도가 되면서 근대화가 된 과정이 있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부평을 잘 알고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발제 2

시민이 예술하고, 예술가가 시민활동을 하는 지역

◆ 권순금

권순금

저는 지금 한국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권순금입니다.

예술가의 시민 활동이라 하여 제가 발표 제안을 받으면서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해 봤습니다. 자칫 제 자랑일 것 같아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았는데 법정 문화도시 부평의 주민들이 저처럼 문화도시인으로 변화를 거듭한 케이스가 될지도 몰라서 편하게 이야기를 해 봅니다. 법정 문화도시 5년이 지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모될지, 다양하게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대구에서 초중고대를 다 나오고 26살 때 결혼해서 부평에 왔어요. 그리고 그 26년보다 더 오래 37년을 부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은 초중고를 다 부평에서 나왔어요. 아이들은 인천을, 부평을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도 부평을 삶의 터전으로 희로애락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부평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속속들이 다 안다고 자부했는데 아까 박일용 선생님처럼 내가 살기 이전의 부평에 관한 역사나 지역 이야기는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의 과거 얘기는 귀를 기울이게 된답니다. 살아있는 부평의 문화를, 그리고 지역의 예술가로 꿈을 키워나가면서 제2의 고향인 법적 문화도시 부평에서 문화 두레 시민의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는데요. 애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문인화나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그때부터 화가의 꿈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전공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수채화라든지 소묘라든지 다시 새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상을 하고 계속 시각 분야 예술에 뛰어들었더니 지금은 국가가 인정한 한국 화가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이후 부평구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부평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상담가로 또 산곡3동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캠페인도 벌이고 지역 방법도 했었어요. 사회 약자인 장애인에 관심을 두면서 장애우대학과 대학원을 수료하며 장애인에 대한 애환과 처지를 알았고요. 또한, 부평구 예술인 협회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꾸준히 부평예술제 서예인회전, 사랑나눔전, 풍물축제전, 해원전 등 작품을 내고 있으며 서인 부장, 부의

장을 거쳐 현재는 서인에서 감사를 맡고 있어요.

부평이 음악 도시가 먼저 되었죠. 풍물 축제와 시각 예술가 공연 등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접목을 의논했는데 지금은 영역이 아주 많이 넓어져서 놀랐습니다.

저는 문화두레시민 운영단으로, 문화도시 부평 심사단 시민평가단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참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화도시 시민 포럼에 참석한다는 것도 좋고 집담회를 통해 내가 더 시야를 넓히고 배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시민 활동으로 인천광역시 시민정책자문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기회의를 통해 시민 정책자문단의 추진 성과, 2021년과 22년 인천시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인천의 자긍심 고취와 부정적 의미의 개선 방향에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얼마 전 부평 미래 발전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구정 운영 방향 및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부평구 소통 공감 토론회 환경 분야에 참여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시민 활동을 마칩니다.

송천 권순금의 사회활동

2021년 인천시민자문단 활동

- ☞ 인천사랑운동센터) '환경특별시 인천' 로고 공모전
- ☞ '시민정책자문단 선호도 조사' 인천시 e한눈에 시민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로 확대
- ☞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
- ☞ 인천시 버스정류소 개선안에 대한 안건
- ☞ 시민시장 대토론회 우수제안 선정
- ☞ - 인천과 함께한 당신을 기억합니다
- ☞ 추모(追慕)기사 게재사업 추진계획
- ☞ [인천광역시 · 지역신문 공동 캠페인



민선8기 부평구구청장 공약평가단

- ☞ 부평구청에서는 공감과 소통본과의 구청장 공약평가단으로 구청장 선거시 여러분야에 관한 구청장공약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구체적 의견제시 평가를 하고 있고 공약이행평가단은 선거 공약 구체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약 확정 후 공약 이행에 점검과 평가 등을 한다.
- ☞ 만 19세 이상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 추첨을 통한 35명의 평가단을 선발했다.
- ☞ 공약이행평가단의 역할과 의미를 교육과 공약사항 분야별 ▲더 큰 부평 ▲경제 부평 ▲복지 부평 ▲소통문화 부평 ▲안심 부평 등 5개에 분과를 구성했다.

민선8기구청장 공약평가단



부평구 소통+공감토론회



- 3층 중회의실
- 부평미래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구정운영방향 및 정책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부평구 소통+공감토론회가 있었는데 환경본과에 참여해서 의견을 냈죠

시민활동

제2기 시민정책자문단



2022년 시민정책자문단 자문안건들

- ☞ 희망도서 서점 바로대출
- ☞ 인천형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 지원
- ☞ 인천형 시민안전보험
- ☞ 고향사랑기부제
- ☞ 인천시타투어
- ☞ 인천시 치매관리사업 ICT활용 지원사업계획

부평2020비전 위원회

- ☞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 등 다양한 정책단계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부평 비전 2020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공약사업으로 2기 부평비전 2020위원회는 지난 총 주민위원 42명 중 연임 위원 29명을 제외한 13명을 공모로 모집했으며,
- ☞ 구정 현안사항 등에 관한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한 6개 위원회가 있는데
- ☞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부평 비전 2020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총 13차례의 분과회의를 진행해 구민과 공무원의 정책제안 142건을 심의했으며, 24건을 채택했다.

부평구,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이행평가단은 선거 공약 구체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약 확정 후 공약 이행에 점검과 평가 등을 한다.
만 19세 이상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 주점을 통한 35명의 평가단을 선발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의 역할과 의미를 교육과 공약사항 분야별 ▲더 큰 부평 ▲경제부평 ▲복지부평 ▲소통문화부평 ▲안심부평 등 5개에 분과를 구성했다.

부평 2020비전위원회

- ☞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 등 다양한 정책단계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부평 비전 2020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공약사업으로 2기 부평비전 2020위원회는 지난 총 주민위원 42명 중 연임 위원 29명을 제외한 13명을 공모로 모집했으며,
- ☞ 구정 현안사항 등에 관한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한 6개 위원회가 있는데
- ☞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부평 비전 2020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총 13차례의 분과 회의를 진행해 구민과 공무원의 정책제안 142건을 심의했으며, 24건을 채택했다.



인천시의회 제6기 의정모니터



- ☞ 인천시의회가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을 위해 의정모니터를 운영한다.
- ☞ '제6기 의정모니터'는 오는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요구 사항 등을 개선했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정책을 제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정모니터의 제안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한다.

산곡3동 주민자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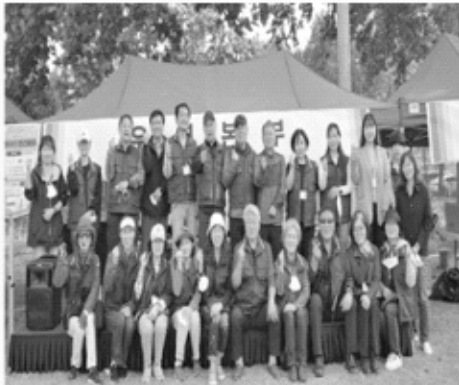
- ☞ 주민자치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우리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역할을 갖는 조직으로, 주민 공론장인 주민총회를 거쳐 수립된 자치계획을 수행합니다.
- ☞ 40명 위촉 2년 임기

2022년 부평구소통+공감토론회



- ☞ 부평 미래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구 정운영방향 및 정책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부평구 소통+공감토론회 환경본과에 참여해 원탁토론에 참석

산곡3동 주민자치회 환경행사



국민권익위원회

- ☞ 국민생각함
 -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국가나 시나 구청에서는 정책을 제시하거나 결정할 때 공무원 자체의 결정을 하지 않고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문조사와 의견서, 온라인 투표하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도 꾸준한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 장단점을 제시받아서 결정하죠. 공모전도 자체심사단에 국민,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합니다. 공무원 적극행정심사도 시민들이나 구민의견을 반영하고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다보니 더 공정을 향해가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의 정책과 비교 and 매일 소통하고있죠 그 흐름으로 저도 적극 컴퓨터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부평에 관하여

아~ 부평

♪ 부평은 제 삶의 터전이고 꿈을 향한 산실입니다.

♪ 초,중,고,대학을 대구서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올라온 부평에서 저는 제2의 고향인 부평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나고 초,중,고를 여기서나와 대학은 다른지역이지만 2남매 애들은 여기가 고향입니다.

♪ 37년간 부평서 전공이 다른 화가를 꿈꾸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중입니다.

발제 3

〈굴포천천히〉의 시작과 진행 과정

✦ 문경선 문화도시센터 굴포천천히 담당

문경선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 센터에 굴포천천히 사업 담당자 문경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문화두레시민운영회에서 굴포천천히 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여기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진행 과정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굴포천 환경 프로젝트 굴포천천히는 굴포천 예술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고요. 21년도에는 갈산 유수지 산책로에 조명하고 야외 휴게 공간을 조성했었습니다. 2022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굴포천의 시민들이 오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던 찰나에 굴포천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연계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평리단길이라고 굴포 먹거리 타운부터 시작해 일명 카페가 많이 조성되어있는 거리 있잖아요. 근데 그 거리에 보면 골목 골목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일회용품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굴포천이라는 도시환경을 상징화 시키고자 굴포천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왔는데요. 6월에는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환경 실천가분들과 환경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며 이해 관계자들 안에서 사업을 조금씩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행하다 보니 의지만으로는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제로웨이스트샵 대표님들과 또 플로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덕분에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한 환경 프로젝트는 환경 교육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8월부터 9월까지 4회차 정도 운영을 했었고 쓰레기 자원순환 기후 변화, 채식 등 환경과 많이 관련되어있는 것들을 융합형 교육으로 강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시민분들께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강연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즐거워 해 주셨고 또 많이 얻어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느꼈을 때 전반적인 사업의 만족도는 높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활성화해서 교육 위주의 것들로 시민분들을 많이 만나고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에 이어서 10월 8일 토요일

날 굴포 기후변화 체험관 인근에 있는 갈산 유수지를 포함하여 아이프락 생태 놀이터에서 환경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환경 플리마켓을 중심으로 환경 체험과 공연 그리고 환경도서 전시존을 마련해 특정 대상의 시민분들만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 관심이 없더라도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가족단위의 참여자분들이 많았고 정말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즐기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과정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사업 담당자로서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사업을 운영하면서 불안감이 있었고 저도 배우고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내가 이거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사업을 또 꾸준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시민들을 만나고 환경 교육이나 환경 축제에서 인식과 행동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니 담당자로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 이 사업 더 하면 재밌겠다, 내년에는 더 즐거운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한 플랜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환경 교육과 환경 축제를 진행하고 그 뒤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만들고 활동하는 시민 환경단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의견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에는 어떻게 보면 이해 관계자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향유 하는 환경 프로젝트였다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주인인 주민분들께서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022 문화도시부평 굴포천 환경 프로젝트

굴포천천히

굴포천 환경 프로젝트

6월

라운드 테이블

8~9월

환경 교육

10월

굴포천 환경 주간

굴포천과 무엇을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업으로 굴포천을 상징화할 수 있을까?

향후계획

발제 4

머무르고 싶은 부평의 자연과 도시환경

◆ 최종희

최종희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직장을 퇴직하고 사회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찾다가 문화두레시민운영회를 선발한다는 걸 알고서 신청해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운영회에서 환경분과 교육분과 소모임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부평 문화도시 차원에서 시민이 찾아가는 시민주도형 문화 콘텐츠 발굴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 모임에서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시민 제안으로 머무르고 싶은 부평에 대해 자연과 도시환경조성 두 가지 차원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다시 가고 싶은 자연환경조성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외부로 많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평 안에도 찾아갈 만한 너무나 좋은 곳이 많은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평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연환경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SNS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환경 조성을 해서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설은 설치했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챕터로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 문화 인천 부평입니다. 첫째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요즘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많은 사람이 부평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데 지저분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로 불친절, 서비스 개선입니다. 부평 지하상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외부에서도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 불친절함을 제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낙후된 시설을 고칠 때 무장애 시설로 수리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부평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문화 포용입니다. 다문화 학생들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잘 모르다 보니 다른 또래 애들보다 많이 소외되고 적응이 부족해요. 다섯 번째는 실버 세대들이 많아짐에 따라 고령자들과 아동, 젊은이들과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어우르는 환경의 필요함입니다.

이제 첫 번째 챕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에는 굴포천,

장수산, 원적산, 광학산, 나비공원 부평숲 등 다양한 장소가 있는데, 우리가 굴포천만 하더라도 되게 잘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SNS를 통한 홍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SNS 인증 사진으로 많이 올리고 있으니 이런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조성해서 거기와 관련된 행사를 하고, 시상을 하고 그 작품들을 전시한다면 찾아오기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로 부평이 서쪽에 있어 노을이 참 예쁘거든요. 굴포천에 노을 전망대를 설치하면 사람들이 와서 노을과 인증샷도 찍어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미와 실용성을 함께 살린 디자인으로 건축에서부터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니 우리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양에 가면 고추 모양의 디자인으로 자기 도시만의 특색을 살린 것처럼 우리 부평도 뭔가 부평만의 특색이 있는 디자인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시설 이용에 관해서인데요. QR코드를 이용해 불편 사항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는 리플렛을 다운받아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불편 신고 QR코드로 앱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놀이터 이런 곳에다가 이 QR코드를 설치해놔요. 언제든지 시민들이 찍어서 신고를 하면 빨리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놔는데 이러한 것도 인천의 각 곳에 있는 공원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무장애 시설 등을 통해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 문화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가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 문화 조성인데 아까 굴포천에서 했다는 플로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책도 하고 건강도 챙기면서 쓰레기도 줍는 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참여한 사람들에게 쓰레기봉투나 시장바구니 같은 걸 배부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쓰레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휠체어 탄 사람들이 인도에서 내려가 가지고 건너가기 전에 차도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막을 해놔는데 그 보호막에 박스 같은 걸 쌓아두다 보니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편해 보입니다. 만일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 있다면 신고해서 처리가 될 텐데 아쉽습니다.

그 밖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모습, 이게 시민들의 의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평시민의 의식도 고치는 것이 의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평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환경을 더 개선하고 발

전시켜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꽃3 시를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에게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부평이요 오래 그렇게 있거라 감사합니다.

부평도시사업 환경관련 시민 제안

◆ 제안 주제 : 머무르고 싶은 부평
(자연 & 도시 환경 조성)

◆ 목표 : 부평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살기
좋은 문화 환경 조성

발표 내용 구성 1

1) 다시 가고 싶은 자연환경 조성

- (1) 부평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연환경이해
- (2) SNS를 통한 홍보행사 운영 및 환경조성
- (3) 편리한 시설 이용 안내
- (4) 공원 시설 관리 필요

발표 내용 구성 2

2)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 문화 환경 조성

- (1)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 (2)친절한 부평 환경 조성
- (3)무장애 시설 설치로 더불어사는 부평 환경 조성
- (4)다문화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부평 환경 조성
- (5)세대를 아우르는 부평 환경 행사 조성
- (6)안전한 부평 환경 조성 필요

1) 다시 가고 싶은 자연환경 조성

- (1)부평 사람들이 사랑하는 곳 환경이해
굴포천, 부개산, 장수산, 원적산, 광학산,
나비공원, 부평숲 등의 아름다운 부평 자원을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자연 환경 조성 필요

[1] 자연환경이해[부평 부개산~광학산]



[1] 자연환경이해[부평 부개산~광학산]



[1] 자연환경이해[부평 나비공원]



[1] 자연환경이해[부평 원적산]



[1] 자연환경이해[부평 장수산]



[1]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기



[2] SNS를 통한 홍보행사 운영

- ◆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조성과 행사 ▶ 시상 ▶ 전시
 - 계절별 즐길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
(억새축제, 야생화, 벚꽃길, 수생식물관찰, 철새관찰)
 - 일몰 감상대, 어린이 숲체험, 숲치유 공간조성
 -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세련되게 조성

[2] SNS를 통한 홍보행사 운영[보고 체험하기 환경조성]



[2] SNS를 통한 홍보행사 운영 [보고 체험하기 환경조성]



[3] 편리한 시설 이용 안내

- ◆ 체험 프로그램, 둘레길, 운동코스, 개방시간, 주차장 이용안내, 위치 및 교통, 주변 시설과 맛집, 불편신고 등을 편리하고 쉽게 QR코드를 통해 사이트 연결, 리플렛 다운로드, 불편사항 신고 앱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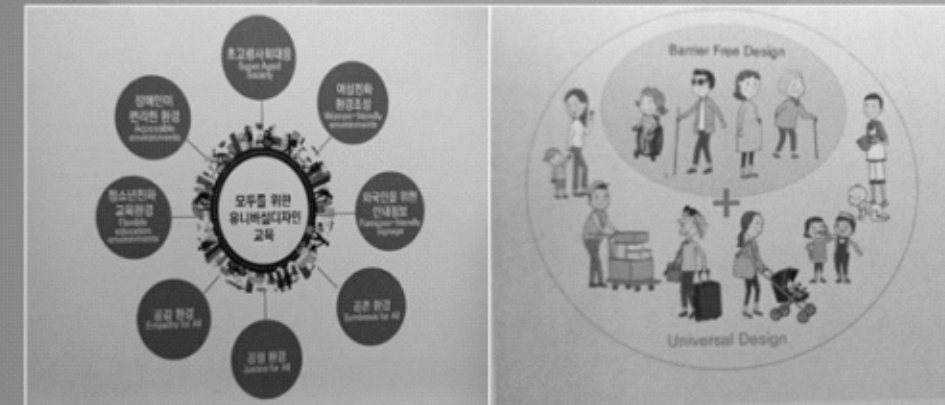
[3] 편리한 시설 이용 안내



[4] 공원 시설 관리의 필요성

- ❖ 조경시설 관리 : 계절별, 유니크 디자인
- ❖ 휴양시설 : 급수시설
- ❖ 유희시설 : 유아숲, 산림욕 체험숲, 노을전망대, 포토존 등
- ❖ 편익시설 : 둘레길 개방화장실, 벤치
- ❖ 등산로 바닥 : 야자매트, 데크 설치를 통한 안전성추구
- ❖ 휠체어, 임산부, 아동, 노인 배려(유니버설 디자인 시설로 편리성 추구)

(4) 공원 시설 관리의 필요1



[4] 공원 시설 관리의 필요2



2)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문화 환경조성

(1)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 필요

- 플로깅('이삭을 줍는다' 스웨덴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 ▶ 참여자(기념품:쓰레기봉투, 시장바구니 배부)
- 가게, 시설 주변 쓰레기 치우기 운동 전개
- 부평의 특색을 살린 유니크 디자인 휴지통 설치
- ▶ 스마트 신고 어플 만들기(사례: 서울시, 화성시)

[1]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1]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1]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1]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2] 친절하고 밝은 부평 환경 조성

- ◆ 현금거래유도
- ◆ 위압감 조성과 불친절한 태도
- ◆ 야간 시간대의 어두운 거리와 골목
- ◆ 부평 문화의 거리 무질서
- 건전한 상거래 계도, 시민의식 고취, 치안강화

[3] 무장애 시설 설치로 더불어 사는 부평 환경 조성

- ◆ 낙후된 시설 재정비시 무장애 시설로 변환 : 화장실, 놀이터, 도로시설 설치 및 정비, 등산로, 공원 산책로 등



[4] 다문화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부평 환경 조성

- ◆ 다문화 이해교육, 음식 축제와 거리조성, 정착을 위한 도움 프로그램(한글교육, 창업, 자격취득 등), 다문화 학생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심리상담 및 진로상담)



[5] 세대를 아우르는 부평 환경 행사 조성

- ◆ 노인시설과 유치원 연계 행사,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놀이축제
- ◆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맞춘 행사(플로킹, 유연한 성정체성)
- ◆ 시대 트렌드 반영 : 가드닝(풀멍), 리페어(수선), 스몰액션(비누로 머리감기 등)

[6] 안전한 부평 환경 조성

- ◆ 보행자 우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 ◆ 울퉁불퉁 기울어진 보도블럭
- ◆ 인도가 없는 골목도로



[6] 안전한 부평 환경 조성



발표를 마치며

부평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 환경을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평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나태주 시인의 '꽃3'을 인용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부평이며, 오래 그렇게 있거라.

제언 1

함께 나누는 당신의 이야기

- 환경보호와
굴포천천히에 대한 아이디어

◆ 함께 해서 좋은 누구나

김유정

최종희 선생님께서 오늘 논의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주제에 있었던 무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10분 정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환경 보호와 굴포천천히에 대해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 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 내지는 문화도시센터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5년간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행복하고 삶이 즐거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굴포천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 하천이었거든요. 굴포천 하면 그냥 단순하게 구청 인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굴포천의 발원지는 만월산 칠성 약수터서부터 시작이 됐고 지하가 복개된 이후부터 보이는 게 구청역 있는 데서부터 해서 구천을 지나 서해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도시 사업 중 하나가 환경과 염두에 두고 진행할 수 있는 게 굴포천이 아닌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 접목을 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 실행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열

아까 최종희 선생님께서 머무르고 싶은 부평의 자연과 도시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선생님께서 저 많은 걸 어떻게 저렇게 준비하셨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카페 거리의 쓰레기 문제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그 시간을 조금 늦추거나 구별로 아니면 동별로 1동, 2동, 3동, 4동 등 정하고 그분들한테 만약에 쓰레기가 없다

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리고 그 쓰레기 부분에 대해 부평구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하루에 3시간인가 4시간 해서 시간당 보수를 지급하는 걸 제가 본 게 있어요. 혹시 그 활동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 활동이 거기에 투입되게 되면 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희

제가 그 일에 관여하지는 않고 저희 두레시민운영회가 그러한 아이টে을 발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꼬집어내는 모임이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에 노인 일자리 창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기관으로 나가 활동하시더라도요.

그러니까 만일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경우 구청 등에 시민으로서 제안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열

네.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없애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쓰레기를 없애려면 쓰레기통이 있어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텐데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로 쓰레기통을 없애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거예요.

최종희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을 없앤 취지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반대 효과가 나버려서 더 지저분하게 돼 버린 것 같아요. 문화의 거리만 가도 도로변에 담배꽂이가 쓰레기하고 뒤섞여서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말이 문화에 걸린 거지 이게 문화가 아니라 저급한 문화가 돼 버린 것 같은 너무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예술인들하고 협업해서 부평의 디자인을 살린 유니크한 쓰레기통을 만들면 좋겠어요.

노수진

권순금, 박일용 두 분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권순금 선생님께서는 여러 활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동기가 궁금해요.

그리고 아까 박일용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민 활동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문화도시 부평을 만들어가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의견을 좀 여쭙볼게요.

권순금

시민 활동은 사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요. 저는 부평구청하고 인천시청은 항상 사이트를 열어봅니다. 왜냐면 제가 시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흐름이 있는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제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고민이 되어서요. 요즘 흐름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적인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온라인으로 의견을 많이 표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설문 조사가 끊임없이 오고 피드백이 되니까 영역을 자꾸 넓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문화재단, 부평구 문화재단 그리고 부평구청, 인천시청 그리고 국민 생각함을 들어가 보거든요. 제 바운더리 내에서는 의견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

니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서 유튜브도 많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민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박일용

저는 시민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인이나 그런 것들을 외부적인, 선천적인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보면 선천적인 것은 부평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트센터나 둘레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자연스레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참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종희

저도 여기 참여하게 된 이유는 답답하고 무언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 시민으로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시민 활동을 하려면 참여하는 의식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시민 활동을 하며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주민 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주민만의 축제인 거예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함께 가는 축제였으면 참 좋았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또한 옛날에는 바깥에서 구경하는 일반 시민이었지만, 제가 직접 참여하고 바꾸는 활동을 통해 마인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시민의식을 갖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발제 5

누구나 편한 소풍길 제안

◆ 서선미

서선미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 아이 덕분에 어른으로 엄마로 또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 서선미입니다.

아이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면서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정한 배려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누구나 편안한 소풍길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에는 평리단길, 테마의 거리, 먹자골목, 청리단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가려져 있다는지, 점자 블록의 부재, 높은 턱 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 보행 약자를 위한 승강기 및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와 청각장애, 자폐, 치매, 실어증 등을 중심으로 보안 대체 의사소통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과 다양한 세면대 높이,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거울과 세면대의 높이도 누군가를 위한 화장실이 아닌 모두를 포함하고 배제하지 않는 화장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한 해 한 해 노약자는 계속 늘어나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도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부모님과 공원이나 카페를 갈 수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누구나 편안한 소풍길이 있으면 가족 나들이 장소로 활용할 수 있고요. 보행 약자를 위한 편안한 이용길이 될 수 있고, 상인들에게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통이 쉽고 편한 길이 좋은 예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모두에게 편안한 곳으로 인식이 될 때 문화가 되고,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아닌 모두를 포함한 환경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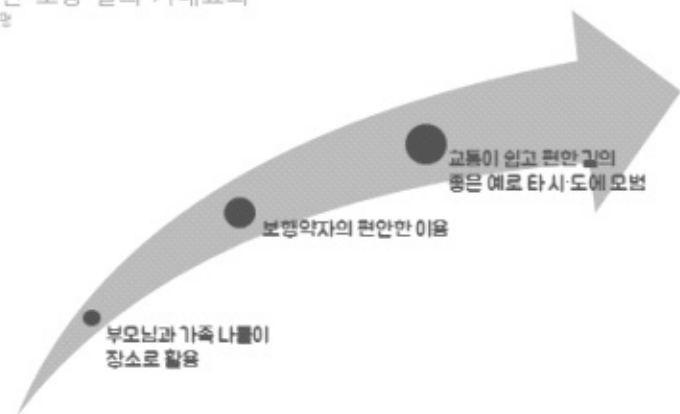


누구나 편한 소풍 길
부평

노인복지 생활 시설 수 현황



누구나 편한 소풍 길의 기대효과
부평



발제 6

무장애도시의 개념과 부평

◆ 김광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김광백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광백입니다.

저도 집은 부평이어서 원적산이라든가 나비공원이라든가 굴포천 등 자전거 타고 다녀 보기도 하고 많이 다닙니다. 특히 원적산 둘레길은 다른 산에 비해 안내판이 잘 돼 있어서 여기 가면 되게 편리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나비 공원에 아까 무장애 데크도 올라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마 미래 세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 나눠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글귀를 좋아하는데요. 차별은 공기와 같아서 기득권 얘기는 잘 보이지 않대요. 그런데 차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 매번 차별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기 차별, 먼지 차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새 서울이라든지 인천을 다녀보면 제일 어려운 게 영어로 된 간판입니다.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다 영어로 적혀져 있고 간판 영어가 또 이제 쉬운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번 명동에 갔다가 여기가 어느 나라일까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간판들은 대부분 영어로 쓰여있어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이라든가 영어를 모르신 분들은 실제로 어느 약속 장소를 얘기하더라도 그곳이 그곳인지를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이름도 다 영어로 쓰여있으니 쉽게 알기 힘들어서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 인지가 낮으신 분들, 문자를 모르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곳들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무장애 길에서만 장애인은 무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 길을 벗어난 순간 우리는 또다시 차별과 배제의 공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장애 도시에서 무장애 길에서만 우리가 장애를 해방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들을 더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를 공부한 사람들은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찾으면 안 돼요. 너라고 시작되는 질문들을 좀 사회적으로 바꿔본다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 사회적인 부분을 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의 질문을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은 개인에게 물어본 질문인 거고, 오른쪽은 신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며 사람들이 당신과 어떻게 소통할 수 없는지, 어떤 환경이 당신이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 가운데 두 번째 단지 물병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이 지니는 디자인상의 어려움도 있어요.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각장애인 음료수 점자는 음료수 하나로 쓰여 있거든요.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맥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디자인상의 결함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만 만들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최근에 저는 트렌드를 따라 발달장애인분들이 읽고 쓰기 쉬운 자료 만들기라는 것을 활동으로 하고 있어요. 발달장애인분들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회와 경험들을 줘야 하는데 글자판이 너무 작다든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메뉴판이 많아서 항상 같은 것을 먹게 되시더라고요. 저도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가게에 갔다가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주문을 못 하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간식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수고로움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짜증과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키오스크로 만들어진 세상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분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우리 사회가 경쟁과 효율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으로 왜 장애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특수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질문이 있어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면 어르신 중에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왜 집에서 요양을 하지 못하고 요양원에 가야 하는 사회인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최근에 사회복지 중 통합 돌봄을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살던 곳에서,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분리시켜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장애가 버스로 여행하거나 이동하기 어렵게 한다는 질문도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계단으로 이루어진 버스를 차별 버스라고 부르거든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 오랫동안 싸운 결과 영국 정부가 2005년부터 전역 버스 도입 계획을 세웠는데 10년 만에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2022년 지금 인천시에 다니는 버스 중에 14%만 저상버스입니다. 14% 중에서도 두세 대 정도, 한 20~30% 정도는 기사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너무 작동을 안 해서 망가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가 사회의 문제로 볼 것인가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분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사회의 관계와 법과 제도와 혹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들이 보완해 주지 못하는 환경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 도시의 개념을 사용해야 하고요.

아까 서선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AAC가 있는데, AAC는 의사소통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AAC 중 저는 문자 보낼 때 음성으로 문자 많이 보내는데 그런 것들도 AAC 중에 하나예요. 실제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어르신들, 이주민들, 다문화와 관련된 이주 배경에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사소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 통합의 효과는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소통 체계를 밀접하게 높여주는 것이 통합을 시키는 가장 좋은 효과지요. 부평구에서도 AAC와 관련해 여러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군가와 어떻게 소통하려고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가져가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이 이걸 열심히 연습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사는 비장애인들이 나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생각을 가진 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지 만이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예산이 없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념이 빈곤하기 때문이라고요. 장애인은 실제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15가지 유형의 장애가 있거든요. 다 달라요. 다 다른 요구와 다른 어떤 편의시설과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휠체어 타신 분들에게 편리한 경사로를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위험한 길이에요. 왜냐면 보이지 않는 분들한테 경사는 자기 균형감을 잃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중요한 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 큰 틀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꾸준히 끝까지 함께 하는 과정과 노력이 실제로는 무장애 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기회로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부평
시민포럼

무장애 도시 부평, 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개



- 인천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고민합니다.
- 일하는 곳은?
-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차별은 공기와 같아 기득권에게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보이지 않지만,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차별과 함께 살아간다.

(김승섭, 2020, 장애의 역사 중에서)

1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1.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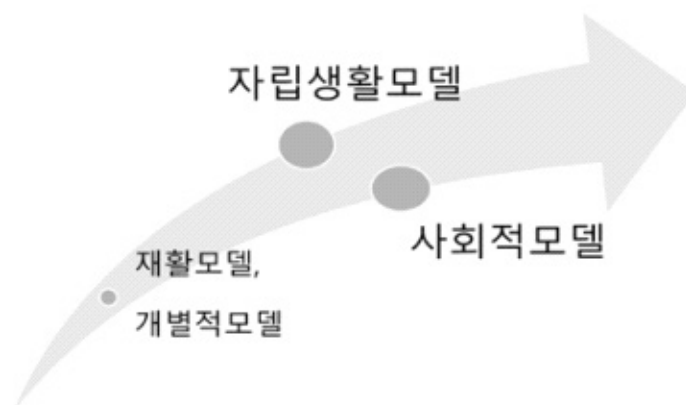
영국 인구조사국 질문	마이클 올리버
●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 당신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 당신 신체의 결함이 물체를 붙잡고, 쥐고, 돌리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킵니까?	● 단지나 물병, 그리고 강통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이 지나는 어떤 디자인상의 결함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붙잡고, 쥐고, 돌리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킵니까?
● 정각상의 문제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해, 당신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당신은 일상활동에 제약을 가져오는 상처나, 결점 또는 기형이 있습니까?	● 당신이 지냈을지 모를 어떤 상처나 결점, 또는 기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당신의 일상 활동에 제약을 줄니까?

1.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영국 인구조사국 질문	마이클 올리버
● 당신은 장기간의 건강 문제나 장애 때문에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당신과 같은 건강문제나 장애를 지닌 이들을 특수학교에 보내려는 교육당국의 정책 때문에 당신은 그곳에 다니고 있습니까?
● 당신은 건강 문제나 장애 때문에 여기에 왔나요?	● 지역사회의 어떤 부족함이 당신을 이곳에 오게 했나요?
● 당신에게 가까운 이웃을 방문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 당신이 가까운 이웃을 방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인 제약은 무엇인가요?
● 당신의 건강문제나 장애가 버스로 여행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하나요?	●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이 그것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키나요?

2 장애 다시 생각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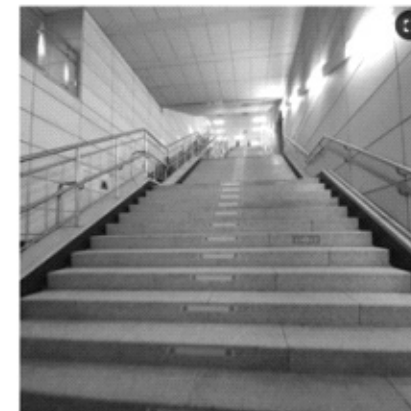
2. 장애 다시 생각해보기



2. 장애 다시 생각해보기

항목	재활모델(MR)	자립생활모델(ILM)
형태	분리(격리)수용	통합(사회통합)
문제의 정의	신체적결손, 직업훈련, 기술의 결여, 심리적 부적응, 동기부여와 협조의 부족	전문가나 가족에의 의존, 부적절한 시스템, 물리적 심리적 장애물
문제의 위치	개인	사회(환경)
관리의 주체	전문가	당사자, 이용자(소비자)
정보의 취급여부	비밀공개 여부(부문공개)	공개(개인에게 공개)
시스템	복잡함	간단(단순)
접근방법	전문적 기술적 접근	동료상담
기대효과	ADL 향상, 직업훈련 가능, 신변처리 기능의 향상	Self Mangement, 사회적 가치의 향상, 사회개역과 주민의식

2. 장애 다시 생각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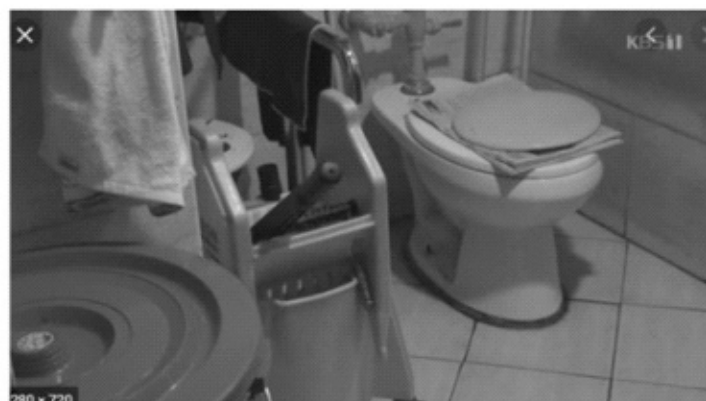
2. 장애 다시 생각해보기



2. 장애 다시 생각해보기



2. 장애 다시 생각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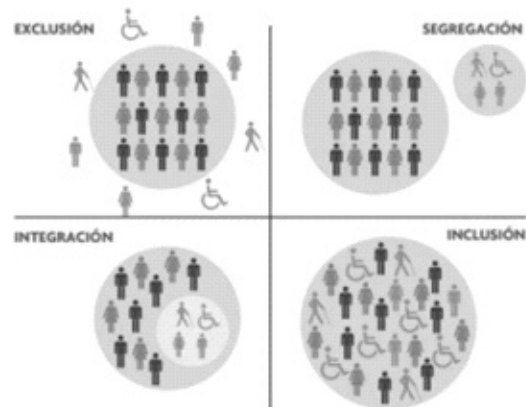
2. 장애 다시 생각해보기



2. 장애 다시 생각해보기

견지 못함	→	버스를 탈 수 없음 접근 할 수 없는 화장실 이용할 수 없는 식당
보지 못함	→	읽을 수 없는 책 보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보도블럭
알지 못함	→	이해할 수 없는 글자와 설명 알아들을 수 없는 설명
안전하지 못함	→	산만한 환경으로 인한 참여 어려움 기다려 주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

2. 장애 다시 생각해보기



3 무장애 도시 부평을 위하여

3. 무장애 도시 부평을 위하여

●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이란??

- ✓ 1960년대 북유럽권에서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비인간적으로 처우한 사실에 대한 사회적인 반성과 각성에서 출발.
- ✓ 정상화 이념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경험, 인생주기에서의 선택의 자유, 정상적인 이웃과 같이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삶,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 등을 강조하면서 시설보호에 반대(김용득, 2012).

3. 무장애 도시 부평을 위하여

● 노멀라이제이션의 건물 구성의 원칙

- ✓ 누구나 접근(access)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
- ✓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 쉬운 버전 제공 ○)
- ✓ 시설(장애인 화장실 등)은 누군가에게 배제/낙인/분리로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 (예 : 장애인 화장실 청소도구 비치)
- ✓ 건물의 모든 곳에 이동 할 수 있어야 한다. (예 :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등)

3. 무장애 도시 부평을 위하여

● Universal Design 이란??

- ✓ 보편 설계는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장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용자의 행태에 따른)
- ✓ 예 : 레버식 문손잡이, 발판을 낮춘 낮은 바닥형 버스, 보도의 높이와 버스 바닥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만든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과 지상을 연결해 주는 엘리베이터 등

3. 무장애 도시 부평을 위하여



3. 무장애 도시 부평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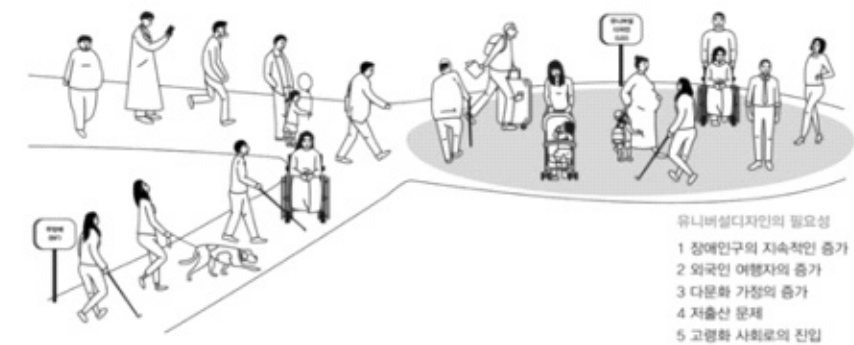


사진 출처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2017)

4 우리의 과제는?

5. 센터의 할 일은?

-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 > 부평구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모니터링
 - > 실제 이용가능 여부 살펴보기
 - > 누가 이용하는가 살펴보기
- 차별에 민감하기
 - > '이 정도면' 이라는 생각 버리기
 - > '누구나'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기

5. 센터의 할 일은?

예산이 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념의 빈곤 때문이다.

(올렌스버거, 1972)

발제 7

평등하게 놀 수 있는 무장애놀이터 제안

◆ 김선정

김선정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학창 시절을 보내고 부평에 대한 애정도 되게 많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와 비장애 아이를 키우며 부평에서 유년 시절을 다 보낸 평범한 주부입니다. 9살, 7살 아이들이기 때문에 놀이터를 이용할 일이 참 많습니다. 둘째 아이가 병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친구도 7살 특수교육 대상자예요. 그 7살 친구는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유치원에 입학한 친구였습니다. 가끔 바깥 놀이를 함께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친구가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고 주변에서 멀뚱히 보고 있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놀이터에서부터 소외되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게 현실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아이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단 놀이터에서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부평구 복지공약에서 살펴본 결과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지정추진위에서 법적인 근거에 아동이 고려되는 지방정부의 행정체계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 발달, 의견 존중을 지방정부가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정책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 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 자체 내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어디를 가려고 하면 아이들을 보는 시선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마음의 우울감도 많았지만, 부평의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통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같이 사는 사회여야 되고 그게 문화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잘 누리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발언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발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

저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입장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타까울 것 같아요. 개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짐을 맡긴다는 것은 사회, 국가적으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자리를 통해 공론화시키고 하나씩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제 8

발달장애아동과 완성한 무대와 기획

◆ 윤재훈 월류엔터테인먼트 실장

윤재훈

요즘 저희 대표님이 많이 바쁘셔서 이렇게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걸 간접적으로 많이 보고 느꼈던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이랑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랐고 벌써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부평구는 제가 춤을 배우러 왔던 지역구 중 하나였습니다.

댄스라는 문화가 굉장히 저변이 낮고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못 받았던 그 시절에 부평구만 유일하게 매트로나는 지하철에서 많은 댄서분들이 모여 같이 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평은 뭐랄까 인천에 있는 모든 구 중에 가장 크게 느껴 졌었고, 저희의 문화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게 도움을 주었던 구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평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문화예술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서구, 중구, 남구 쪽으로 계속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이 들어 부평구 사람은 아니지만, 부평구에 대해서 꼭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실제 저희는 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테스트를 열고 개최하면서 청소년, 일반인 그리고 전문 댄서분들이 계속해서 문화를 유지할 수 있게 춤을 추면서 그들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대표님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토는 항상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같이 즐길 수 있게 무대를 마련해야 하고 같이 올라가서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무대에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생생한 사운드를 들으며 많이들 춤을 추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무대는 결국 전문 댄서분들만이 많이 쓸 수 있는 전문무대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요즘에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지만,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깨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갑자기 부평에서 누군가의 개인 레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절대 개인 레슨을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바쁘셔서 누구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교육이라는 것을 되게 즐겁게 하고 오시고 눈에 생기가 돌고 계신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 대상이 누군지는 사실 몰랐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친구들이 그 대상자들이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영상만 봤을 때 저는 이 친구들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춤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추는 게 아니라 누구든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의지, 열정, 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문화라는 힘이 차별이 아닌 화합을 할 수 있는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페스티벌이 아닌, 진짜 일반인들이 여는 그런 행사 무대에 한 번 올려보자 싶어 대표님이랑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전문 브레이크 댄서분들이 나오는 2:2 배틀라는 행사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한 댄서분들이 나와서 심사를 보고 그들의 춤을 경합하는 그곳에서 이 친구들이 최초로 그들 앞에서 게스트 무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친구들을 무대에 올려서 괜히 저희가 전문 댄서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 그 잠깐의 5분 때문에 괜히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생각과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관객분들이 350명 정도 와 있었고, 참가팀은 160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게 되었고, 그 박수가 저도 아이들도 말을 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페스티벌이 아니라 같이 하는 페스티벌에 와서 준비했던 무대에 한번 꼭 서보고 싶다는 그 희망을 여기서 보여주며 문화라는 것은 같이 느끼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즐겨야 그 문화가 더 커지는 것을 <놀아줘>라는 친구들을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편견으로, 차별을 가지고 살아왔었고 당연히 이들도 춤을 추는 댄서라고 바라봤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도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문화도시라는 게, 문화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원초적인 생각부터 다시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부평이 법정 문화도시가 되었다고 꼭 부평구만을 위한, 부평 사람들만을 위한 의견을 듣는 게 맞을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부평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을 들으면 더 원하는 방향의 문화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든 부평이든 연수든 항상 뭔가 공고를 내면 그 지역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 하기보단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그 지역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화도시가 커지고 활발해지려면 타 지역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문화재단과 아산문화재단이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세종시문화재단은 타 지역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교류의 장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의견을 받아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시민들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세종시의 이미지,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해서 문화예술을 키워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와 같이 또 다른 지역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시민 포럼에 참여를 해 주시고, 오셔서 부평을 위한 의견을 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부평이 어느 지역보다, 어느 구보다, 어느 도시보다 진짜 가장 큰 문화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문화라는 것은 모두가 아우를 수 있는 화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라는 것을 원초적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화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문화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렇게 시민 포럼이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부평에서 한 단계 잘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가진 시민들이 계신 것을 보니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좋은 자리 있으면 저도 많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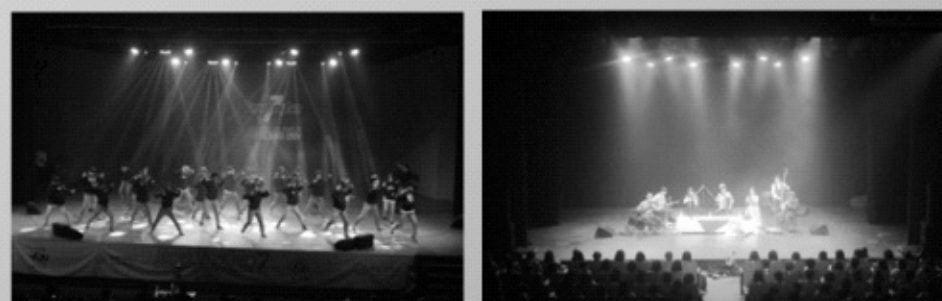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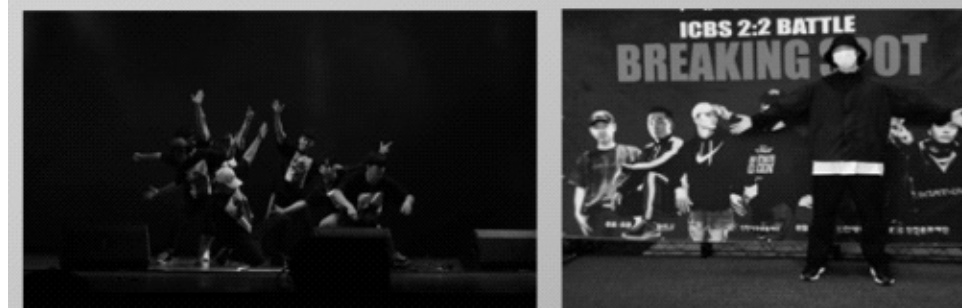
제가 오늘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희가 포럼을 많이 개최하고, 참석도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며 느꼈던 것들이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이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 그리고 행사를 잘하시는 회사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며 인식의 전환이 되고, 그 인식의 전환에 의해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문화도시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느꼈던 것들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부평만을 고집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부평만을 고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보니 핵심은 시민인 것 같아요. 문화를 즐기고 창조하고 있는 그 주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민인데 그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고심을 갖고 있어요.

다음으로 함께 나누는 나의 이야기 소수자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제안을 가지고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소수자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조금 생각해봤습니다. 누구나 다 늙을 수 있고,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누구라면
춤을 추며 즐기고 놀아보자.



제언 2

함께 나누는 나의 이야기
- 소수자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제언

◆ 함께 해서 좋은 누구나

신경열

저희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삶을 보고 계시고, 또 그 삶에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며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하면 안 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를 하던 중,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저는 사실 반대했었어요. 왜냐면 한 학급에 23명을 가르친다고 가정할 때, 22명의 일반인 아이와 한 장애인 아이를 가르치면 그 아이로 인해 시간이 더 소요되고, 다른 아이들이 더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보조교사와 전문적으로 장애에 대해 배운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통합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만약에 숲을 가서 저희가 다치거나 다리가 하나 부러지지 않은 이상 이곳이 장애우들이 가기에 너무 어렵다는 걸 몰라요. 그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이 그리고 그들과 같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들이 알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불편 사항이나 개선돼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희가 장애우를 만나거나 같이 생활할 경우 저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광백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장애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해주세요라는 것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엔 묻고, 기다려주고, 확인하는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며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회의에 가서 말씀드릴 때 누가 알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나라 사회구조를 보면 약한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혹은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알려집니다. 최근에도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보고 배우려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지에 대해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아 교육, 사회복지 등 우

리 사회에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장애에 대해서 잘 배우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유아 교육 체계도 특히 특수교육을 거의 잘 안 배우시고 나오시죠. 초등 교육, 중등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이미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한 예로 노르웨이라든가 북유럽권 나라에 가면 특수 교사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교사는 모두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단순합니다. 누구나 어디에서 배제되면 안 돼요. 특히 유아 교육은 통합 교육이 된 지가 꽤 됐죠. 한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반 교육 쪽에서도 이제 통합 교육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그것을 실현 시키기에 어려운 구조라서 많은 선생님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찾기보다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바뀌내지 않는 이상 교육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조금씩 놓아가면서 권력들을 나눠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공기처럼 퍼져있는 차별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약자들은 매 순간 차별인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를 더 설명해 달라거나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가끔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종희

아까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통합학급을 운영하며 그런 학생들을 접하면서 그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체험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도 소수자가 행복한 나라가 빨리 됐으면 합니다.

김광백 선생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 또한 나이를 들다 보면 책임이 힘들잖아요.

인천광역시에서는 이 아이들이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게 어떤 여건을 준비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백

특별하게 운영되는 건 없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싸우고 계십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오래 했어요.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서비스가 있어도 분리를 전제로 하는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는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향유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야 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곳에서만 공기를 마시거나 문화를 향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우리 목표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연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용

제가 미추홀구 발달장애인 학생들하고 일주일에 한 두번 체육관 대관을 하고 있어요. 제가 7년 동안 한국 농아인 농구연맹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장애인 애들과 외국으로 농구 교류도 보냈고, 인천 농아인협회에서 수화도 배우고 그랬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익숙해지다 보니 후원은 둘째치고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인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조금 더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국장님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김광백

솔직히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마지막에 이념의 빈곤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쓰는 말과 행동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가속화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장애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장애우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장애인의 반대는 비장애인이지 일반인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장애를 낮은 사람, 장애인은 부족하

고 배워야 할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려면 이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농구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잘 되는 공동체는 서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장애인분들이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많거든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시설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의 이념이 실제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비판이 있을 때 잘 수용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권순금

저 명칭에 대해 한번 여쭙볼게요. 제가 장애우 대학원을 나왔는데요. 그 당시엔 그 명칭을, 장애인 대신 순화된 것을 명칭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 명칭을 안 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명칭에 대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선정

아이가 학교에 등·하교를 하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엄마랑 같이 와요. 아이가 ‘엄마 재 장애인이야.’라고 말하면 엄마는 ‘안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이는 이 말은 하면 안 되고 친구가 상처받는다고 인식을 해서 다음부터 그 말은 못 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장애인이라고 엄마가 편하게 얘기하고 설명하면 돼요. 그래 너하고 조금 다르지만 같이 할 수 있다고요.

제 아이가 스무 살인데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냥 쳐다보는 건데 아이는 그 시선이 자기한테는 폭력으로 느껴져서 그 시선 때문에 밖을 나가지 못해요. 저희 아이와 같은 친구들은 노화가 빨리 와서 새치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애한테 화려하게 염색을 시켜주고 옷도 다양하게 입혀줬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되게 불편했지만 ‘내가 조금 특별한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네’라고 인식한 후에는 시선에 대해 조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네가 스타일이야 양말도 짝짝이

신어도 돼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른들의 편견 어린 시선에서 아이들은 그대로 모방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른들이 편견을 안 주면 아이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들은 스스로 낮아지고 안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서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엄마들부터 이렇게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의욕이 생긴다면 엄마들도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유정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하지만, 시간상 정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추워지면 장갑을 끼잖아요. 병어리 장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데 그건 하나의 통념인 거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무의식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이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라 인지하지 못 하고 내 편한 대로 하는 것, 그것 자체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활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의 장단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부족함과 더함을 통해 서로 화합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제 9

스탬프투어 : 우리가 사랑하는 부평의 장소와 공간

✦ 주철민 아도커뮤니티 대표

주철민

앞서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을 들으니까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은 정말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부평을 제대로 즐기고 신나게 놀 수 있는 어떤 방법 내지는 도구장치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스탬프 투어 부블루스 스탬프 투어고요. 우선 스탬프 투어란 어떤 것인지, 타 지자체가 얼마나 스탬프 투어를 이용하고 있는지, 스탬프 투어를 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생각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스탬프 투어에 들어갈 자랑스러운 부평의 장소, 공간,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탬프 투어라고 들으시면 대충 아시겠죠? 우선 오프라인 스탬프 투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용지나 지도를 받아서 장소로 이동한 다음 도장이나 인증샷을 찍고 몇 개 이상이 되면 상품을 타는 방식입니다. 이 스탬프 투어 방식을 이용하려면 안내소나 용지를 받아서 도장을 찍고 또 기념품을 수령 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모바일에 그대로 옮겨놓은 스탬프 투어 앱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항상 여행을 계획하면 어디를 가야지 우리 그녀가 좋아하실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요. 찾기가 힘들던 참 아는 친한 동생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핸드폰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그 장소로 가면 자동으로 알림이 울린다는 거예요. 제가 있는 지역 중심에서 가까운 데부터 나오고 지도가 내비게이션이랑 연결이 돼서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샘플을 모아서 여행도 하고 선물도 받는 서비스가 지자체에 40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스탬프 투어 모바일 앱의 장점이 뭐냐면 코스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소소한 재미가 있는데, 오래 같이 사신 분이랑 같이 가면 데면데면하죠. 솔직히 뭘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면 옆에서 자기야 어디를 가자, 어디를 가자, 어디 가자 하다 보니 대화를 물꼬가 터지니까 일단 분위기가 좋아져서 싸울 일이 없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상품권이나 할인권을 모바일로 주는 도시나 지역의 경우에는 다시 가야 하고, 그 자리에서 쓸 수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다시 돌아가자면 이미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대구, 인천, 소래포구 등의 도시에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평구에서 이걸 도입하면, 운영자로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조달청 디지털 서비스 몰에 들어가서 스탬프 투어를 검색하면 1,770만 원에 입찰이 가능하더라고요. 미션을 달성하면 어떤 선물을 주는지 보니까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조그만 쌀, 큰 쌀을 주기도 하고 강원도 모 도시 같은 경우는 곤드레 나무를 집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럼 부평에서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 부평구청에서 하는 나눔 장터에서 본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컵 받침, 손수건, 공정 무역 에코백, EM발효액 등 부평구에서 환경보호나 기타 등등 좋은 의미로 시작된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상권과 연결해서 사용 가능한 교환권이나 할인권, 아니면 쉽게 기프티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어떨까를 생각해 봤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건 공방에서 최종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체험하며 기념품을 자기가 만들어서 갖고 가는 것으로요.

이런 스탬프 투어를 생각한 의도는 문화도시 부평을 홍보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또한, 스탬프 투어를 통해 숨겨진 장소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행사 홍보에 도움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평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포스트를 개발해서 부평 문화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참여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거는 대상자별로 맞게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체험을 한정 짓지 않아도 되어서 다양하게 확장할 수도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부평만의 특색을 담은 장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 부평에서만 하는 풍물대축제니 여러 가지 축제들을 담은 장소를 통해서 문화도시 부평 고유의 스탬프 투어와 사례를 창출하면 부평의 위상 내지는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식탁을 생각해 보면 기본 반찬들이 항상 있죠? 김치나 밥 등을 1번, 2번으로 같은 경우는 스탬프 투어라는 식탁 위에 기본 반찬으로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다음 별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문화재단에서 큰 축제를 한다면 그 축제를 별미 반찬으로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먹고 끝나면 다시 내리고 또 다른 걸 올리고 이렇게 스탬프 투어라는 식탁 위에 여러 가지 반찬을 올렸다고 내렸다 하는 컨셉으로 문화도시 부평만의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김유정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프라인 스탬프 투어를 온라인 앱으로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고, 요즘 지역 관광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특히 부평에는 공방이 한 305개 정도 다양하게 있기에 그것도 한번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목 차

I. 스탬프 투어란?

3

II. 이용 현황

6

III. 기대효과

7

IV. 장소와 공간 및 프로그램

8

I. 스탬프 투어란?

I-1. 오프라인 스탬프투어

① 주로 동산로, 들레길, 축계 등에 활용 가능하며, 안내도(지도)에 스탬프 획득 장소 표시, 표시된 장소에 가서 도장을 받고, 기존 개수이상의 도장을 받으면 기념품을 받는 투어 서비스

관광스탬프안내

1.지도수령 2.스탬프찍기 3.인증사진 4.발급신청 5.인증서수령

스탬프 운영장소에서 '서울한양도성 스탬프 투어지도'를 수령하며 투어시작

한양도성 완주도전

1.지도수령 2.스탬프찍기 3.인증사진 4.발급신청 5.인증서수령

114

98 부평구문화재단

2022 문화도시부평 시민포럼 사후자료집 99

I. 스탬프 투어란?



I-2. 모바일 앱을 활용한 스탬프투어

- ① 모바일 앱을 이용! 스탬프를 모아 여행도 하고 선물도 받는 투어 서비스
- ② 40여개 지자체가 이용 중인 서비스



115

II. 이용 현황



전국 지자체 스탬프 투어 모바일 앱 이용 현황

강원도	속초시, 강릉시, 홍천군, 양구군, 삼척시, 횡성군, 평창군 온라인 스탬프투어
경기	이천시, 포천시, 여주시, 화성시, 하남시, 평택시, 마재마을 스탬프투어(남양주시)
경남	사천시, 창원시, 함안군, 밀양시, 산청군, 진주시, 울산광역시 북구 남해군, 창녕군, 함양 대동산휴양밸리 모바일스탬프투어
경북	경주시, 영천시, 청도군, 성주군, 울릉군, 한수원 모바일스탬프투어, 경주시 해파랑길 걷기대회
대구	동구, 내추얼대구 캠퍼스스탬프 투어인솔이벤트, 내추얼 대구 숲은힐링찾기 모바일스탬프투어, 내추얼대구 프로젝트 모바일 스탬프투어

[스탬프 획득 미션 달성 시 선물]

- ① 기념품(순은 기념품, 협박집, 손수건, 커피박연필, 공정무역에코백, EM발효액 등 사회적 기업 연계)
- ② 지역 특산물(쌀, 곤드레 나물 등)
- ③ 지역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교환권, 할인권
- ④ 일정액의 기프티콘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산	서구, 진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영도구, 낙동강하구길 100리 투어, 금정생태힐링트레킹
서울	송파구, 서울동대문
인천	동진군 영흥면, 연수구 소래보구축제 스탬프투어
전남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목포시, 담양군, 함평군, 진도군, 영암군, 화순군, 전라도 100리
전북	전북전리길,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장수군, 임실군, 진안군, 전주한옥마을 골목길투어, 전주한옥마을 문화유산투어
충남	보령시, 서산시, 공주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https://digitalmallg2b.go.kr:8058/index.jsp>)에서
“스탬프 투어” 검색 (17,700,000원)



117

I. 스탬프 투어란?



I-3. 스탬프투어 모바일앱 이용 예시



116

III. 기대 효과



III-1. 기획 의도 :

- ① 다양한 개별 문화 행사 및 장소, 공간 등의 홍보와 인구 유입
- ② 문화도시 부평의 행사, 축제 등의 주민(주민 및 타지역인) 참여를 증가
- ③ 문화도시 부평과 지역 상권 활성화의 연계 방안
- ④ 문화도시 부평 내 문화적 장소, 공간 발굴의 계기

→ 부평 방문객 증가 및 주민들의 부평 여행, 부평 알기 “Facilitating Solution” 필요!

→ “문화도시 부평”과 다양한 축제, 행사 등의 홍보 INFRA 중의 하나!

(다양한 개별 문화 행사 및 장소, 공간 등의 홍보와 인구 유입)

III-2. 기대효과 (promotion, product, people, place)

- ① Promotion : 다양한 문화 행사와 스탬프투어를 결합, 행사 홍보에 도움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
- ② Contents : Quality와 Quantity를 모두 충족하는 문화적 POST(장소, 공간 등) 발굴
- ③ Contents : 다양한 부평 문화의 Infra 형성 : 대상자별, 테마별, 목적별 등
- ④ Economic : 방문객/참여자의 증가는 지역상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⑤ Brand : 부평 문화의 Image Making에 도움 : Brand Power Up

118

IV. 장소와 공간 및 프로그램 : 스탬프 존



IV-1. 걸어서 즐기는 부평

- ① 부평 공원, 굴포천, 부평 들레길, 신도리공원 등
- ② 장수산길 & 나비공원, 원적산길 & 공원, 합봉산길, 벽화거리 등

IV-2. 가족두어

- ① 역사박물관, 안전체험관, 기후변화체험관 등
- ② 나비공원, 벽화거리 등

IV-3. 쇼핑과 먹거리

- ① 부평 지하상가, 부평 강시장,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평리단길 등
- ② 부평 해물탕거리, 굴포천 먹자골목 등
- ③ 문화적 요소가 있는 맛집 : 더하운키친, 스시키나바루, 더심일, 살리제름 베이커리, 산등모자, 참새초밥, 메이스테이크, 리비개, 유미대고, 해니아, 깨달, 북해가 이탈리아, 장고재즈점, 휴더바, 밀레, 음악기지 확형로 등 ('내 친구의 산책' 참조)
→ 문화적 요소 (주인장의 자부심, 나라별 맛집, 문화공간 여부, 스토리텔링 가능한 상황 등) 고려한 선정 필요
→ 계절, 반기별, 행사별로 변동&수정

IV-4. 소소한 공간

- ① 휴식 루트 : 오늘 우리 여기, 코오리, 북극서점, 연꽃빌라, 아크커피, 카페 5월 19일, 사각공간 등
- ② 공연장 : 잔치마당 소극장, 올레(밴드공연장), 공연창작소 지금 등
- ③ 공방 루트 : 1~2시간 미만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할러 (우주방앗간, 가구공방 호작달, 작은가게 모연, 세라믹 스튜디오, 허들빌 도자기 공방, 그림나라 등) → 스탬프 획득 기념품 선포 제작 및 수월

119

IV. 장소와 공간 및 프로그램



IV-5. 부평 별곳

- ① 별곳의 체험 프로그램 연계하여 스탬프 획득하는 방안



일반적 스탬프 투어 획득 장소+문화도시 부평만의 특색&프로그램&축제를 담은 장소
= 문화도시 부평 고유의 스탬프 투어 사례 창출

120

발제 10

지역노인복지관을 활용한 아동돌봄에 관한 의견

◆ 신경열

신경열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길에 봤더니 노인 복지관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저기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쪽 일을 하다 보니 맘카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글을 올리신 거예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집에 안 계신 거예요. 갑자기 막내가 열이 나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을 올리신 거예요. 휴일에도 일 때문에 급히 나가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든지 아마 이런 경험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빛을 보고 생각했어요. 노인 복지관에 한 분만은 안 계시거든요. 저희 권사님들도 사람을 찾으러 갈 때 항상 복지관에 가세요. 평일에도 주말에도 저녁에는 다 거기 계시더라고요.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 문화도 즐기시니 거기에 사람이 없는 적은 못 봤어요. 노인 복지관이나 경로당이 동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022년 9월 기준의 노인 인구 현황을 보면 인천시에, 그리고 부평구에 저 많은 인구가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83세인데 매우 정정하시고 집에 있기 지루하다고 말씀하시길래 노인센터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센터에는 노인분들이 할 일 없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존심 상해하시더라고요.

인천시가 8개 지역 중 노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다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찾아봤더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있으나 어느 정도의 생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노인 일자리의 종류를 찾아봤는데 보육 시설에 가서서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일상생활 지도도 하세요. 손을 닦아주시다던가 어디 이동할 때 줄 세워서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것들이요. 노인 여가 시설의 명칭이 뭔지 아세요? 복지관이 명칭이에요. 그리고 실제 부평구에는 경로당이 약 204곳이나 있어요.

보편적으로 근무하는 양육자들은 오후 7시 이후에 일이 끝나요. 그 이후 맡긴 아이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보통 오후 7시 반 이후까지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곳은 잘 없어요. 그래서 노인 여가 시설을 활용하자는 것이예요. 출근을 너무 빨리하거나 퇴근을 너무 늦게 하는 양육자를 대신해 복지관을 긴급보호소로 운영하는 거죠.

노인 여가 시설을 이용할 때의 순기능은 노인 복지관이 직접 수익을 번다는 거예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려면 구에서 돈이 들지만, 복지관은 보육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 요금을 받고 모아 그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은 어른이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지도가 가능한 점이에요.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 자기가 본 어른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나쁜 짓을 못해요. 그리고 저희 모임 중에서도 전래 놀이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쓸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그럴 경우 여기 가서 쓰시면 되고, 구연동화 말하기도 여기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안 심심하시고 아이들은 어른들과 만나게 되니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낮가림이 적어지는 거죠.

대신 성범죄 이력이나 법정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성교육을 수료하고 놀이지도사나 전래 놀이, 종이접기 자격증 등이 있으면 우대를 해 주고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

저희 부평의 구성 인구를 보면 제가 5년 전에 조사했을 때 평균 연령대가 40대였거든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45에서 55 그러니까 한 10여 년이 이제 밀리는 거죠. 그만큼 연령대 자체도 높아지는 사회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주제를 포함해서 더 나아지는 문화 부평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체적으로 강평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2022년 9월기준 노인인구 현황



- 노인이란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
- 인천시는 8개의 특.광역시별 노인인구 중 노인의 수가 3번째로 많다.
- 노인일자리 사업은 있으나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 시간은 많고 체력은 팔팔~~

노인 일자리의 종류

- 공익활동 :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 방문 돌봄사업 (노노케어) 등
- 사회서비스형 : 보육시설, 청소년 수련관시설, 다문화가정시설, 기타 지원시설 등
- 시장형 : 인력파견(주유원, 청소원 등), 아파트택배, 실버카페, 쇼핑팩 등공동작업등

부평의 노인여가시설

복지관	문화대학	노인대학	경로당
부평구 노인복지관	산곡노인 문화센터	부평지구회 부광 선일 행복한 실버	200여곳

돌봄이 필요한 18세미만의 아동이 갈 수 있는 기관의 시간

-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오전7시~오후 7시30분
- 아동 (지역아동센터): 필수 운영시간 : 학기중
14:00~19:00 / 방학중 12:00~17:00 (※ 토요일, 공휴
일 운영은 시설 여건 및 실정에 따라 상이)
- 저녁 7시30분 이후에는 있을 곳이 없음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할때의 순기능

- 이용부담금이 저렴하다
-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지도가 가능하다.
- 사회성이 발달한다.
- 장유유서를 자연스럽게 익힌다.
- 여러가지 다양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다.
- 집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네에서 한번쯤 마주쳤을 어
른들이기에 낯가림이 적을 수 있다.

노인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 상

-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의 유아 (영아는 제외).....
양육자가 원하고 노인여가 시설에 노인인력이 있을
때 보호
- 평일 보육시간 이전....
노인인력이 함께 어린이집 차가 올때까지 보호
- 평일 보육시간 이후....
노인인력이 보육종사자의 퇴근 후 양육자가 올 때까
지 보호
- 위급한 상황인 경우(아이가 여럿인데 한 아이가 아
파서 병원에 가는 등)....상황이 끝날때까지 보호

조건사항

- 성교육 이수자
- 성범죄조회 결과보고자
- 법정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자....등등
- 각종 놀이지도사나 (전래놀이, 종이접기, 풍선아트,
구연동화) 유아교육 전공자, 간호학과 졸업자 우대
^^

한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제언 3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 문화도시부평을 위한 다양한 관점

◆ 함께 해서 좋은 누구나

최종희

신경열 선생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아동 돌봄 교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 돌봄도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경열

제가 말로 설명은 안 했지만, 자료에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시간도 있었거든요. 돌봄 시간이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의 복지사들이 퇴근해야 하니 아이들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물론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집에 가기는 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 예를 들면 제 지인은 대학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지방에 있고 기러기 부부예요. 초등학생 아이가 둘인데 알아서 잠을 자는 거죠. 엄마가 오로지 케어를 해줄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컴퓨터 게임 중독에 걸려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내는 부담금조차 못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부담이 덜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가족처럼 돌봐주는 것은 조금의 이익과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종희

저는 아까 발표 들으면서 뭐가 걱정되는가 하면, 믿을 수 있는 곳인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인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주관으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신경열

그 말씀을 예상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거 좀 어려운데’, ‘이게 좀 불안한데’ 등 해보기도 전에 걱정만 하는 것 보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어린이집에 CCTV가 있는 것처럼 제반 사항들을 넣어서 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최종희

복지가 잘 되어있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주선하여 노인들과 연계해 모니터링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5세 이상인 사람은 언어교육이라던가 외국어 교육 등 중요 교육까지도 할 수 있게끔 패턴을 다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운영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유경

오늘 선생님들에게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네요. 제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부평에서 선생님들이 제안해 주신 것들을 취합해 사업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려 하는데 혹시 어떻게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방식에 대하여 생각해보신 게 있다면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경열

저는 스탬프 투어를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실행하려면 어떻게까지 해야 하는지, 예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모여서 장소만 선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권순금

저는 스탬프 투어 기념품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설문 조사를 하다가 부평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이 질문에서 막히더라고요. 다른 지역처럼 농산물이나 고향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평의 상품을 생각하면 포인트밖에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도시잖아요. 부평의 문화 상품권을 발행해서 음식이든 뭐든, 무언가를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각 지역의 고향 상품권처럼 세금감면 혜택을 줘도 되고, 그런 문화 상품권처럼 만들어서 평리단길 가게, 재단의 공연 관람 등 부평의 이곳저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봅니다.

최종희

저도 아까 거기 제안한 내용 중에서도. 깨끗한 부평이 만들어지기 위해 빨리 문제점을 시정 할 수 있도록 불편 신고앱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정

지금 제안해 주셨던 것 중 괜찮은 사안은 이게 진행했었을 때 시너지 내지는 부평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순위를 매긴 다음, 그걸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사업화 시키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서선미

아까 김선정 선생님이 무장애 놀이터를 말씀하셨잖아요. 아파트 안에 곳곳마다 놀이터는 다 있어요. 근데 놀이터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걸 다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무장애 놀이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장애 아이와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어른들도 놀이 좋아해요. 저희 엄마는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그네를 좋아하세요. 그네를 타시려고 새벽에 아이를 깨워서 놀이터를 가시곤 해요.

놀이터의 기준도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게끔 만들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철민

여러 가지 안건이나 제안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운영회가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올해는 구심점이라기보다는 일단 모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나 싶고, 내년에 사업을 구체화 시키는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단의 의견을 먼저 도출한 후에 샘플을 보여주시면 그걸 토대로 우리 시민운영위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 우선순위나 실행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향후 다시 회의 주제로 만들어서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큰 틀의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검토를 통해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길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22 문화도시부평

시민포럼 사후자료집

발행인 이찬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총괄 김유정 시민팀 팀장

기획 노수진 시민팀 팀원

지원 고다윤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21440)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8(십정동)

디자인 아이드디자인